



기독교대한감리회

청파교회

교회세운날 1908.5.1

함께 지어져가는 우리

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
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
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

주 일 낮 예 배 순 서

【 성령강림 후 6주 】

인도 : 1부 이재훈 목사
2부 이범석 목사

전 주	반주자
임재의 기원 626.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(x3)	다 함께
예배로의 부름	인도자
▲ 경배의 찬송 8. 거룩 거룩 거룩	다 함께
▲ 공동기도	다 함께

자비하신 하나님,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. 주님, 7월 첫 주일입니다. 뒤늦은 장마와 극심한 무더위,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,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 현실에 의기소침해집니다.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, 어두운 골짜기 너머 주님께서 예비하신 환한 새날을 보게 해 주십시오.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해 주십시오.

주님, 북반구 곳곳이 이상 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수백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, 대형 산불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, 이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우리를 꾸짖어 주십시오. 지구 생태계가 시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▲ 참회의 침묵기도	다 함께
▲ 위로의 말씀 시84:5,6a	인도자
▲ 교 독 문 14. 시편 24편	다 함께
▲ 영 광 송 2. 찬양 성부 성자 성령	다 함께
2부대표기도	안홍숙 장로
2부찬 양 540.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	다 함께
▲ 성경봉독 느 2:11~18	I. 인도자
	“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” II. 정택중 집사
	“하나님, 감사합니다” 다 함께

특 주	예수는 참된 나의 기쁨	유청빈 교우
말 씬	폐허를 딛고 서서	김기석 목사
거듭기도		다 함께
2부 찬 양	488. 이 몸의 소망 무언가	다 함께
▲ 봉 헌	317. 내 주 예수 주신 은혜(1,5절)	다 함께
▲ 봉헌기도		김기석 목사
공동체 소식		김기석 목사
▲ 평화의 인사		다 함께
▲ 보냄의 말씀		다 함께


인도자 : 교우 여러분,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. 무너진 토대를 다시 정비해 세우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. 권능의 팔을 들어 친히 우리를 도우실 터이니, 새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.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건설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.


다 함께 : 아멘. 주님, 삶의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그 난관만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. 거친 오르막에서도 함께해 주셨던 주님의 미쁘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. 새 희망을 품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. 주님,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. 아멘.

▲ 찬 양	635. 주의 기도	다 함께
▲ 축 복		김기석 목사

	설교	기도	성경봉독	인도
다음주	1부 김기석	공동기도	인도자	이재훈
	2부 김기석	박범희	조두희	이범석

 청파교회 페이스북 <https://www.facebook.com/chungpachurch/>

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-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'예배실황' 클릭

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: 친구검색창에 '청파교회' 검색 후 채널 추가

※ 헌금계좌 : 새마을금고 9002-1751-3375-3 (예금주 : 청파교회)

